

안산시, 6대 기관 시민 안전 위해 한자리 모여

행정·경찰 등 민생 안전 관련 다양한 현안 논의
기관 간 협력 기반으로 주민 맞춤형 안전망 구축

경기도 안산시가 23일 안산시 대표 6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사천리 민생 안전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일사천리 민생안전회의는 안산시와 경찰서·소방서·교육지원청·평택해양경찰서가 참여해 민생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점검하는 회의체다.

회의를 통해 △반달섬 정주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통합관제센터 현장 시찰 등 현안에 대한 합동 대응을 이어왔으며 제8회 한국거버넌스 대상과 제7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연이어 수상하는 등 대외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민군 시장을 비롯해 이강석 안산단원경찰서장, 김수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훈 안산소방서장, 우

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과 각 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4회를 맞은 이번 회의에서는 올 한 해 민생 안전을 위해 펼친 기관별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주요 안전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시는 올해 10개 권역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권역별 민생안전회의 △자치경찰사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공·폐가 환경개선 사업 △만·관·경 합동순찰 등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안전한 상호문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반달섬 범죄예방센터 개소 △외국인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교육 추진을, 안산상록경찰서는 △월곡동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안전 환경 개선



이민군(왼쪽 네 번째) 안산시장과 6개 기관장 등이 23일 제14회 일사천리 민생안전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산시

△본오1동-안산동 범죄예방 환경 개선 수행 사례를 공유했다.

안산소방서는 화재·구조·출동 건수 감소 성과와 보고와 함께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취약지역 해소 △맞춤형 화재안전 대책 추진 사례를 발표했으며, 안산교육지원청은 △학생 등·하교 안전 강화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설치 확

대 △반달섬 라군인테라스 통학 학생 지원 등 교육 현장의 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 시장은 “올 한 해 동안 안산이 비교적 안정된 민생안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 경찰, 소방, 교육 등 지역 6대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결과이다”라며 “협력의 과정이 시

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도 기관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 맞춤형 민생안전 거버넌스를 한층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화성특례시,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제도 개선 추진

이용자 조사서 이용 만족도 70%·재이용 의사 82% 답변
설문 바탕 민원 접수 등 처리 현황 안내 체계 강화 검토



화성특례시가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화성특례시

경기도 화성특례시가 ‘생활불편 도와드림 QR’(이하 도와드림 QR)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와드림 QR’은 시가 5월16일 도입한 제도로 시민 누구나 QR코드 하나로 간편하게 일상 속 불편사항을 즉시 개선 신

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한 시스템이다. 별도 앱 설치 없이 QR코드 스캔만으로 민원 접수가 가능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달 23일 기준 실제로 도와드림 QR을 이용한 총 2151명을 대상으로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이용 편의성 △신고 절차 만족도 △처리 결과 제감 △향후 개

선 필요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이용자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214명이 응답(100%)했으며 이용 편의성과 처리 결과 안내에 대한 만족도 의견이 70% 이상 향후 생활불편 도와드림 QR을 재이용하겠다는 의견이 82% 이상으로 나타났다.

개선 의견으로는 ‘처리 안내 부족’이 제안돼 시는 이용자가 민원 접수 현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 등 안내 체계를 강화해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민 눈높이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고도화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은 “이번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이용자 설문조사는 시민 의견을 통해 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며 “설문 결과를 토대로 처리 절차 개선 등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수원특례시, 민원행정 ‘국가표준’ 입증

민원행정발전 유공 ‘대통령상’ 수상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행정발전 유공 분야’ 대통령상을 받았다. 통합민원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응하는 것을 차단한다.

올해 한 해 동안 30여 건의 특이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했다. 법적 대응이 필요

한 사안은 즉각 조치하고 다수의 민원을 신속히 종결했다.

특히 무고·허위사실 유포, 폭언·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수원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의료·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 공무원에게는 전문 상담과 치료비·상담비를 지원해 회복과 업무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 교육과 구·동 순회 교육에는 총 1180여 명이 참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민원 현장에서 헌신한 공무원들의 안전을 제도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한 결과이다”라며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시민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안산 ‘풍도 관광안내소’ 개소
관광 인프라 확충 본격화

경기도 안산시가 풍도관광안내센터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풍도 바람꽃 관광안내소’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관광안내소는 풍도를 찾는 여행객과 주민을 위한 관광 거점 공간이다.

시는 풍도 특산품 판매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공간을 활용해 풍도관광안내센터 조성 사업을 마쳤다. 공간에는 △주민 휴게공간 △풍도의 역사와 주요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전시열과 전시대 등을 마련했다.

방문객들은 새롭게 마련된 관광안내소에서 풍도의 문화와 자연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안산시 주요 관광 정보를 담은 영상과 시청 홍보 영상을 상시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풍도 등대를 리모델링해 ‘풍도섬 포토존’을 새롭게 조성하고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풍도 관광 안내판과 야생화단지 이정표도 추가 설치했다.

야생화단지 이정표의 경우 봄철 풍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야생화를 한층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해 ‘야생화의 천국’ 풍도의 매력을 한층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군 시장은 “‘풍도 관광 안내센터 준공으로 주민과 여행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며 “‘풍도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섬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산=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안산 겨울철 레포츠 공간 안산썰매장 개장

120m 대형 슬로프부터 유아 전용 레인까지

경기도 안산도시공사가 24일 겨울철 안산 대표 레포츠 공간인 안산썰매장을 열고 내년 2월15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문을 연 안산썰매장은 120m 길이의 슬로프 9개 레인과 60m 길이의 유아용 슬로프 4개 레인을 갖추고 있다.

또한 매점과 물품보관함, 샤워시설, 고객휴게실, 탈의실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이 마련됐다.

이용요금의 50%가 할인되는 20명 이상

단체는 평일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이용일 기준 7일 전까지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성인 보호자와 동반 입장해야 하며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 중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보호자 1인 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를 할인한다.

안산도시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시 입장 인원을 1500명으로 제한하고 입장객 현황을 공사 누리집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안산썰매장은 겨울에는 눈썰매장, 여름



안산도시공사가 겨울철 안산 대표 레포츠 공간인 안산썰매장을 내년 2월15일까지 운영한다.

안산도시공사

철에는 물썰매장으로 운영되며 안산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 시민도 즐겨 찾는 안산의 대표적인 레저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진욱 관광레저부장은 “이용객 누구

나 안전하고 즐겁게 썰매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겨울 안산썰매장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수원시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 쾌거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가 국민권의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획득하며 기초시의회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청렴 성과를 거뒀다.

25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국민권의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60점) △청렴노력도(40점)를 종합해 산정된다. 전화 및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직무관계자·전문가·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경험을 반영한다.

이번 평가에서 수원특례시의회는 종합점수 81.1점을 기록하며 2등급을 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청렴체감도 71.3점, 청렴노력도 97.5점으로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기초시의회 평균 대비 1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아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를 입증했다.

청렴체감도 분야에서는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전반에서 기초시의회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알선·청탁, 인사 개입,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 이해충돌 회피 의무 준수 등 주요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기록했으며 의정활동과 예산·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청렴노력도 분야에서는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방지 제도 구축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등 주요 지표에서 만점(100점)을 달성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청렴 정책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함께, 구성원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의정환경 조성에 더욱 힘을 기울인다.

수원=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광명시가 제5회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시·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광명시

광명시, 지원금 성과 인정받아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대상 영예

경기도 광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5일 시는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제5회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시·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생학습대상은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관하는 시상으로,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광명시는 2024년 ‘제2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우수 평생학습도시 선정,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 우수상에 이어, 올해는 평생학습지원금 정책으로 대상을 받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완성도를 높이 평가받았다.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은 2023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계층 제한 없이 50대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평생학습 이용 포인트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평생학습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년층에게 인생 2막을 준비할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금이 실제 학습 참여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학습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명=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